

주일 예배 11시

2017년 11월 26일(넷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주 은혜를 받으려(39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61번 다 함께

*찬송 피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479장) 다 함께

기도 김동진 형제

찬송 눈을 들어 하늘 보라(515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 예수: 3. 온전케 하시는 분(요 5장 1-18절)

*찬송 저 북방 얼음 산과(50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 12월 예배 순서 담당

사회:김성진 집사 기도: 장연재 형제(3일), 현윤경 집사(10일)

김동진 형제(17일), 김정수 형제(24일), 김성진 집사(31일)

- 금주 읽을 성경: 시편 45-51편,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기도해 주세요-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묵상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조용하게 빈들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은총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여 갈 그 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며, 그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성전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보이는 이런저런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자신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힘입어 갈 때 우리가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강하고, 그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 장 13 절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값진 삶을 가능케 해 주시는 줄 압니다.

새롭게 날마다 조용히 빈들로 나아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새로운 사귄 속에 성전된 주님께 속하고, 나의 주님 주신 은혜와 그의 붙드시는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하재혁

재물의 욕심만큼이나
근심걱정 많을 때 주님을 만났기에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과욕을 채우지 못해
불만이 충만하고 있을 때에
미물인 내가 무엇이 관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감사와 은혜입니다.
믿음과 순종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한 주님이십니다.

모가 난 죄악이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손을 잡아주심은
새롭게 거듭나는 출애굽기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동스럽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나침반을 따릅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숙성된 김장김치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지듯이
먹여주신 생명의 말씀이

몸 속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등근 달 밝은 빛 안고서
창 밖 귀뚜라미들의 노래 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영광된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
광을 받아 주소서”
찬송을 같이 불러 봅니다.

속량되어온 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자유를 갖게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성령의 옷 입고
선행된 은사를 받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과 순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영광과 영생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11월 26일(47주) 31권-47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